국가 대신 피아노 협주곡 … 도쿄올림픽 이모저모

▲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성화 봉송 최종 주자인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성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 사진=shuterstock

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년이 연기된 끝에 지난 23일 개막했지만 코로나19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어 무관중 경기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 티켓 판매량 고작 4만 장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티켓 판매량이 4만 장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전체 경기의 96%가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터라 예고된 일이었다. 올림픽 정식 33개 종목 경기에 티켓 363만 장이 팔렸지만 코로나19 긴급 사태 발효 후 359만 장이 환불됐다. 조직위는 무관중에 따른 티켓 수입 손실이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 선수촌 논란 거리

도쿄올림픽 개막 전부터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 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뉴질랜드 대표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조정 선수인 숀 커크햄이 침대 모서리에 털썩 앉자 골판지로 된 프레임이 찌그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뉴욕포스트는 골판지로 만들어진 선수촌의 침대를 두고 '안티 섹스(성관계 방지) 침대' 라고 표현했다. 장거리 육상선수 폴 첼리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누가 소변이라도 보면 골판지가 젖어서 침대가 내려앉을 것" 이라며 "바닥에서 자는 연습을 해야할 것 같다." 고 했다.

TV와 냉장고가 없고 좁은 욕실과 화장실에 대한 불만도 폭주 중이다. 조직위는 선수들의 불만에 대해 "기본적으로 냉장고와 TV는 유상 대여 대상" 이라며 돈을 내야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선수들이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 여자 양궁 안산, 한국 최초 올림픽 3관왕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한 안산(20)이 올림픽 양궁 사상 첫 3관왕과 한국 최초 여름올림픽 3관왕에 올랐다. 안산은 혼성 단체전, 여자 단체전을 비롯해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계올림픽에선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쇼트트랙 안현수와 진선유가 각각 3관왕에 올랐다.

■ 미국, 패럴림픽 메달 보상금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이 처음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메달 포상금을 받는다. 미국 선수단이 받게 될 메달 포상금은 금메달 3만 7,500달러(약 4,316만 원) 등으로 비장애인 선수단 포상금과 같은 수준이자 과거 패럴림픽 금메달 포상금(7,500달러)의 5배다.

■ 중국 출신 탁구 대표만 20명

2020 도쿄올림픽 탁구 선수 161명 가운데 중국 출신의 선수는 무려 20명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한국 대표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전지희(29·포스코에너지)는 중국 랑팡 출신으로 2008년 한국으로 이주해 2011년 한국 국적을 얻었다. 또 한국 대표팀 막내 신유빈(17)이 2회전에서 상대한 니시아렌(58)은 중국 태생이지만, 이번엔 룩셈부르크 국기를 달고 경기에 나섰다. 중국은 탁구 강국으로 자국 내에서 대표가 되기 어려운 선수들이 차선책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올림픽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 신체 특정 부위 클로즈업 사라져

2020 도쿄올림픽 TV 중계에서는 선수의 신체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사라졌다.

올림픽 주관방송인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의 야니스 이그재르커스 대표이사는 "선수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등의 장면이 예전에는 가끔 나갔지만 이번 대회에는 볼 수 없을 것" 이라고 지난 27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특히 여자 선수들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부분을 없애고 '섹스 어필' 이라는 표현도 '스포츠 어필' 로 대체한다." 고 덧붙였다.

비치발리볼이나 체조, 수영, 육상 등의 종목은 비교적 노출이 심한 유니폼으로 인해 TV 중계 영상이나 사진에 선정적인 모습으로 전달될 때가 자주 있었다.

▲한국 최초 여름올림픽 3관왕에 오른 안산이 금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대한양궁협회)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에 출전한 여자 선수들은 레깅스와 치마바지, 치마, 반바지, 원피스 등을 자유롭게 입어 화제다. 이란의 소라야 아게히하지아가는 더운 날씨에도 히잡을 쓰고 긴소매 티셔츠와 레깅스를 입고 출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배드민턴의 인기를 높이고 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여자 선수들에게 미니스커트 유니폼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복장을 자유화했다.

■ 국가 대신 차이콥스키 협주곡

도핑 샘플 조작으로 2022년까지 올림픽에서 국기와 국가를 사용할 수 없는 러시아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시상식 때 국가 대신 차이콥스키의 피나오 협주곡 1번으로 대신하고 있다. 국기를 대신해서는 올림픽 마크에 흰색과 파란색-빨간색 횃불이 그려진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깃발이 오른다.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도핑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러시아 선수들은 2018 평창올림픽부터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OAR) 자격으로 출전하고 있다. 러시아의 예브게이 일로프는 27일 수영 남자 1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렀다. 그러나 시상식에서 러시아 국가 대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흘러나왔고,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업소명(한글) : 주소:

(영문): City State Zip

업종: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Since 1994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